

2024. 3. 9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IT전략실

실 장	박 호 진	02) 2290-6287
팀 장	방 동 식	02) 2290-6138
관련홈페이지	<a href="http://www.sisul.or.kr">www.sisul.or.kr</a>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3매

## 서울시설공단, 행안부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

- 공공데이터 행정 두각...전국 특·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최고 점수 획득
- 전사적·체계적 개방노력 높은 평가, '청계천 위치정보 시각화' '교통정체예보서비스' 호평
- 한국영 이사장 "시민생활에 밀접한 공공데이터 발굴·개방해 동행·매력 특별시 조성에 기여"

- 서울시설공단 (이사장 한국영, [www.sisul.or.kr](http://www.sisul.or.kr))이 행정안전부 주관 '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' 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며 공공데이터 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.
- 이번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는 행안부가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개방, 활용, 품질, 관리체계 등을 16개 지표로 종합 평가했다.
-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특·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최우수 점수인 93.11점을 획득했다. 이는 지방공기업 평균 (55.4점)을 훌쩍 뛰어넘는 최상위권 점수다.

- 공단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으로 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. 공공데이터 '중장기 개방 계획' 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개방과 함께 '설문조사' 를 통한 분야별 시민 중심의 데이터를 발굴·개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.
  - 특히, 기관장 중심으로 데이터 업무의 중요성을 사내에 널리 전파하고 담당 직원 확대, 내부평가 지표 신설 등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호평을 받았다.
- 또한,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'청계천 위치정보 시각화 서비스' 및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별 교통정체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'교통정체 예보서비스' 는 시민들의 데이터 체감도를 높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.
- 이 밖에 공단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'공공데이터포털' 에 오픈포맷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.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협의체를 통한 품질관리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.
- 아울러, 공단은 올해 '시민 데이터 채널 운영 확대' '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실시'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
-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이번 평가결과는 공단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” 라고 말하며 “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고 개방함으로써 동행·매력특별시 서울에 기여하겠다”고 말했다.

〈관련사진〉

\*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 사진



\*서울시설공단 청사 사진

